

# 조경묘 정묘,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문화재청서 지정 예고됨에 따라  
현지 조사 등 거쳐 최종 결정



전주 조경묘 정묘 전경.

조선 건국의 역사가 담긴 '봉패지향 전주'의 상징인 전주 조경묘 정묘(全州 鐘慶廟 正廟)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다. 조경묘는 지난 1771년(영조 47년)에 창건된 전주이씨 시조묘로,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과 그의 부인의 위패가 봉안돼있다.

지난달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전주 조경묘 정묘 등 10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조경묘 정묘에 대해 조선시대 왕실이 주도해 지방에 세운 예제건축으로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수준 높은 건축 수법과 독특한 구조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등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보물 지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조경묘 정묘는 높은 기단, 월대 조성, 지붕부 양식비율 등을 통해 높은 품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외관도 비례와 균형이 잘 잡혀 있어 당당한 느낌을 준다. 또 부재는 모두 다편을 사용했는데, 조선시대 건물에서 모

과 실재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손꼽힌다.

문화재청은 전주 조경묘 정묘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조경묘에 이어 현재 조선왕실과 관련된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추가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북대학교와 전주동물원 사이에 위치한 전주이씨 시조 이한의 묘역인 조경단이 대표적이다.

조경묘의 경우 지난 3월 전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문화재청에서 사적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재청의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조경묘 정묘는 국가 주도하여 수준 높은 건축기술이 반영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당으로서 전주이씨 조상들의 분향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보물 지정예고는 정묘 구역만 지정되었지만 향후 정묘 영역과 부속재 영역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조경묘 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 아슬아슬 퍼포먼스 실내공연장 줄타기

둘레,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둘레의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이 지난달 29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에서 정읍의 밤을 가을의 기운으로 가득 채웠다.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둘레의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이 지난달 29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에서 정읍의 밤을 가을의 기운으로 가득 채웠다.

본 공연은 2019~2021년 총 13차례의 공연을 통해 전석 매진 등을 기록한 정읍민의 독보적인 공연으로 2019년 3월 28일 '시작(詩作)'이란 부제로 시작했다. 또한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국악인인 오정혜가 진행을 맡아 더욱 화제를 모았다.

이번 '농담'에서는 사회자 오정혜와 줄타기 권원태 명인의 케미가 돋보이는 무대를 꾸몄다. 권원태 명인은 9월 '농담'의 주제인 가을, 추석과 관련되어 줄타기 공연을 선보였다. 재치있는 입담과 줄 위에서의 아슬아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정읍시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정읍시 첫 번째 실내공연장 줄타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뜻깊은 공연이 되었다.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을 주최·주관하는 사회적기업 둘레의 인수용 이사장은 "농담은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로 풀어내며 시민들 속에 내재되어있는 문화 DNA를 발현시켜 시민들의 삶 속에 문화라는

키워드도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정읍의 문화예술 발전 및 예술가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라며 '농담'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통문화 수도 자리매김토록 헌신”

전통문화전당 신임 원장에 예원예대 김도영 교수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제5대 신임 원장에 김도영(56) 예원예대 대학교 교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당 임원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원장 공모에 지원한 9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김도영 신임 원장 등 3명을 추천 후보로 올려 이사회 등을 통해 김 교수를 최종 선정했다.

김도영 신임 원장은 오는 11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기

는 오는 2024년 10월까지 2년이다.

전북대 상과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원장은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문학석사(동양비학), 전남대 대학원에서 문화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김 신임 원장은 예원예대 부설 문화예술RRI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신임 원장은 "전당이 새로운 시기에 부합하는 정책 실현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재창조를 통한 세계화의 융합 거점으로서 재도약 하고, 전주가 호남의 수부로서 점차 '전통문화의 수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정읍만이 가졌던 '정읍곡' 복원

수제천 정기연주회·학술대회



정읍시와 (사)수제천보존회가 주최·주관한 '제15회 수제천 정기연주회 및 학술대회'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걸쳐 정읍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백제가요, 정읍시에서 기원한 수제천을 보존하고 전승함은 물론, 우리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줌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29일 열린 공연에는 이학수 시장과 장기철 이사장 김현덕 수제천 후원회장을 비롯해 가족 단위 관람객과 시민 등이 참석해 수제천의 선율을 감상했다.

이금섭 감독과 수제천 연주단은 수제천이라는 곡명이 탄생하기 전 정읍만이 가졌던 '정읍곡'의 모습을 되찾아 악가무 형태로 선보였다.

또한 정읍 출신 중견 서양화가 이동근 화백의 수제천 무고춤 스케치는 음악과 미술을 융합해 무대화함으로써 시각과 청각 예술이 하나로 연결되는 생동감을 더해줬다.

뒤이어 차세대 명인으로 주목받는 최석근의 '대금협주곡 청성곡'과 경기도 민요로 호평받고 있는 전병훈 명창의 '노랫가락과 참부타령'이 이어졌다.

특히 정읍천을 주제로 작곡된 기악 합주곡 '이리랑 산책-달하' 연주를 통해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공연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30일 열린 학술대회는 '정읍곡과 무고 복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이종복 경북대 교수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김자꽃 수디디오 이선철 대표의 '전통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단국대 임미선 교수·송실대 문순희 교수의 '대악후보에 의한 정읍곡 복원에 관한 논고'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안남순 한국전통문화연구원장과 손선숙 무용복원 전문가가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무고의 역사적 근거와 사료를 바탕으로 정읍곡(수제천)의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연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준 수제천 보존회에 감사드립니다"며 "무고의 원형과 정읍곡의 모습을 복원하고 있는 수제천이 무형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나의 장애극복 이야기

오늘부터 전북대도서관서 구경선 작가 초청 전시



극복 이야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안성 관장은 "구경선 작가의 삶과 작품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동시에 성공적인 사회 통합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번 전시에 많이 참여해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작품과 그의 이야기로 따뜻해지는 가을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정안성)은 청각 및 시각장애를 딛고 일러스트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구경선 작가를 초청,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북대 중앙도서관 1층 다커먼스 내 전시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개선하고, 대학이 지역민들과 문화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헬렌켈러'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구 작가는 귀 큰 토끼 캐릭터 '베니'로 다양한 전시와 스토리텔링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새로운 발견을 일반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베니 캐릭터에 대한 소개와 작품 전시, 그리고 구 작가 개인의 장애

## 북토크 '시월의 어느 멋진 날' 6일 순창군립도서관서

대표 프로그램 '책, 세상을 열다' 일한

순창군립도서관이 김현서 시낭송가와 이서영 작가를 초청해 오는 10월 6일 저녁 7시 다목적홀에서 시낭송과 함께하는 북토크 '시월의 어느 멋진 날'을 진행한다.

시월의 어느 멋진 날은 순창군립도서관이 해마다 진행하는 '책, 세상을 열다'라는 대표적인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일상 속에서 시를 가까이 하고 인문학을 향유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문화여향을 키워가는데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순창문인협회 회원들의 시를 김현서 시낭송가가 낭송하는 시간도 갖는다.

북토크는 이서영 작가가 함께 참여해 김현서 시낭송가와 쉐 샬버스타인의 하킴이 주는 나무에 대한 북토크를 이어가며 진정한 사랑

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김현서 시낭송가는 대한민국 시낭송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 및 세월호 참사 추모시 낭송 등 서적을 다지며 활발하게 시낭송과 감성스피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서영 작가는 '제2장 장자를 만나다', '사랑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음악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마음밥' 등 인문학 저서를 발행하였으며 IPR공사 최고경영자과정 인문 강의를 비롯하여 공무원교육원과 대학교, 도서관 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인문 강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작가다.

순창군립도서관 관계자는 "아름다운 시낭송과 북토크로 시와 책을 더 가깝게 느끼며, 시월의 어느 멋진 날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조선팝, 전주의 가을밤 정취 더하다

7-8일·14-15일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서 '조선팝 페스티벌'



이번 가을주간 페스티벌에는 △연희합곡 △Eidos △시도(이상 7일) △월드뮤직그룹 '토크토리(Talktori)' △이희정 밴드 △비타(이상 8일) △타이프타인 △시점 △민요밴드 BOB(이상 14일) △만월프로젝트 △TIMY △파르네이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조선팝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7일과 8일, 14일과 15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2022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가을주간)을 개최한다.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은 조선팝을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시는 올해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맞춰 관광객과 시민들이 조선팝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8월(여름주간)과 10월(가을주간) 두 차례의 조선팝 축제를 준비했다.

상 15일)의 조선팝 뮤지션 12팀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공연은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시는 개인 사정 등으로 공연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시민들도 언제 어디서나 조선팝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페스티벌 공연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조선팝TV'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소리의 고장 전주를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장르인 조선팝의 본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선팝을 홍보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조선팝을 글로벌 공연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에는 조선팝 상설공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 진행된 여름주간에는 전년도 인기팀인 '국악인'가요의 축하공연과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된 조선팝 뮤지션 12팀의 노래와 연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

## 8일 덕진공원에서 '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축제'

아마추어 동호회 46개팀 220여명 참여

전주생활문화센터협의회(협회장 고미숙)는 오는 8일 덕진공원에서 '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생·동·감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전주지역에서 활동중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 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주민주도형 생활문화활동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기획된 행사다.

아날 덕진공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의 전시가 진행되고, 오후 1시부터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이어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음악과 전통,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전주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40여 곳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으로 덕진공원을 찾은 전주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미숙 전주생활문화센터협의회장은 "전주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이 준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전주시의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전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생활문화센터협의회(063-247-8890)로 문의하거나, 전주생활문화센터협의회 누리집(www.jonjiculture.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